

共 感

공
감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매거진

VOL. 72
2025 · 3/4

세브노조열차 출발합니다
노동자는 모두 탑승해 주세요

승차권 No.2025-7-21

승차역	경유 1	경유 2	종착역
신촌	강남	용인	유니온숍
Shinchon 1960:7:21	Gangnam	Yongin	Unionshop 2025:12:31

세브노조열차2025

일반실 65호차 5,503호석(순방향)
* 열차 탑승은 세브노조 집행부 및 해당 구역 대의원에게 문의

운임요금 기본급 1.5%

영수액 급여명세서 확인

SEVERANCE HOSPITAL TRADE UNION

theme

조합원의 참여와 연대로
65년간 달려온 세브노조

발행인의 글

오늘의 세브노조를 만든 건 65년간 우리가 힘을 모아 만든 변화

폭우가 할퀴고 간 흔적이 무색하게 다시 찾아온 폭염이 기승입니다.
모든 색이 선명하고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에 노동조합 역시 서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은 노동조합 창립 6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께 생일밥상을 준비해 대접하고,
생일밥상을 드시기 어려운 여건에 계신 조합원께는 시원한 음료와 간식을 대신할 쿠폰을 선물했습니다.
그에 앞서 16일에는 65주년 창립기념식 및 임시대의원대회,
그리고 환우와 함께하는 미니콘서트를 준비해 환자·보호자, 내·외빈과 함께
노동조합의 창립 65주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다시금 노동조합의 의미를 새기고, 긴 시간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오늘을 만들어온 우리를 위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가며 오늘에 이르렀다는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노동조합에 함께해 주신 5,500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금 '엄지 척'을 날려봅니다.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자고 손을 꼭 잡아봅니다.

창립 65주년 행사들로 여념이 없어도 노동조합이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섭'입니다.
노동조합은 4차 본교섭에서 실무교섭 이관을 마쳤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실무교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현장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교섭하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재앙이 우리에게도 가까이 다가옵니다.
극한 폭우와 폭염, 아열대로 변한 것 같은 우리의 여름을 통과하며
지금 우리가 실천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현장과 사회를 돌아보며 우리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하나씩 실천해가겠습니다.
함께하면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리라 여전히 믿어봅니다.

드디어 찾아온 봄에 함께 축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더욱 기쁩니다.

1만 교직원의 대표,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 권미경

CONTENTS

공감 노동조합

- | | | |
|--|--|--|
| 02 from 노동조합
세브노조 주요 뉴스 | 14 일상스타그램
조합원 가족과 함께한
'디즈니 인 콘서트' | 22 노동 잡학지식
주 4일제 사회로의 전환 |
| 06 세브란스 포커스
세브노조 창립 65주년
기념 행사의 날 | 16 알려드리중
창립 기념 행사를
연중 운영하는 까닭은? | 24 우리가 만든 변화
일터의 변화,
얼마나 느끼고 계세요? |
| 10 to 노동조합
함께해서 더욱 즐거웠던
문화 행사 현장 | 18 부서탐방
용인세브란스 병리과 | 28 함께 읽어오
숨 가뻐던 나날의 심포,
여름 힐링 도서 |



공감 이슈

- | | | |
|--|---|---|
| 31 인트로
세브노조열차 출발합니다
노동자는 모두 탑승해 주세요 | 36 이슈 깊이 보기
세브노조열차 선로에
조합원과 함께 세운 이정표들 | 42 경조사 안내
조합원 경조사 함께 나눠요! |
| 32 이슈 살펴보기
249명 태운 꼬마 열차에서
5,500명 태운 특급 열차로 | 40 이슈 멀리 보기
참여와 연대는
세브노조열차의 무한동력 | 44 독자 미션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창립 기념 퀴즈 |

부록

<공감> 2025. 3/4 통권 제72호

발행일 2025년 8월 4일 발행인 권미경 위원장 발행처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디자인 더디앤씨 www.thedn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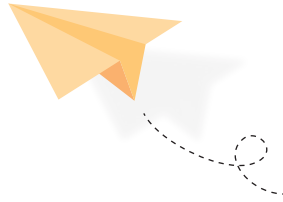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노보지 <공감>은 분기마다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공감>에서는 조합원과 함께 생각할 거리를 나눕니다.

바쁘고 지친 병원에서 갇혀있는 마음의 눈을 잠시 세상으로 돌려 조금 다른 시선으로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 생활에서 실천할 작은 행동을 제안합니다.

Severance Hospital Trade Union Magazine

2025. 05-07

NEWS



본봉 5.8% 인상, 주 4일제 시범사업 확대!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 본격화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본격적인 닷을 올렸다. 노사는 7월 8일 1차 본교섭 및 2025년 1/4분기 노사협의회를 시작으로 7월 14일·15일에 각각 2차·3차 본교섭에 이어 7월 23일 4차 본교섭에는 실무교섭으로 이관하면서 심도 깊고 속도감 있는 교섭을 이어간다.

노동조합은 ▲본봉 5.8% 인상, ▲위험수당, 안전수당으로 변경하고 10만 원으로 일원화, ▲주 4일제 시범사업 확대, ▲육아휴직급여 법정 기준 적용, ▲유급 검진휴가, ▲상근부서의 급여손실 없는 격주 4.5일제, ▲진료지원간호사 노동조건 일원화 등의 요구안을 내고 의료원과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은 최근 교섭을 앞두고 장기근속 포상, 명예퇴직 등을 둘러싼 유언비어로 현장을 혼란하게 하는 세력에 경고하고, 더욱 단결하여 교섭에 임할 것을 조합원께 호소했다.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 참여

4월 29일, 노동조합은 '주 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주4일제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미경 위원장은 실제 병원 현장에서 주 4일제 시범사업의 효과를 생생하게 발언했다. 병원계 최초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한 우리 노동조합은 주4일제네트워크에 함께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다.



노동 존중 세상을 위해!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참여

5월 1일,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조합원 60여 명과 함께 했다. 13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는 빗속에서 진행됐지만 많은 간부·대위원과 조합원이 함께 주 4일제 쟁취, 노동 존중 실현을 외쳤다.



함께 뛰는 즐거움, 여성마라톤대회 참가

노동조합은 5월 3일 제25회 여성마라톤대회에서 조합원 70여 명과 함께 뛰었다. 최근 러닝이 각광을 받고 있고, 노동조합 창립 65주년이라는 계기도 있어 올해는 더 많은 조합원과 뛰기 위해 참가자를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노동조합과 함께 뛰며 건강과 공동체 단합 모두를 챙겼다.



조합원 가족 초청, 디즈니 인 콘서트 개최

노동조합 창립 65주년을 맞아 세브노조 가족 행사로 기획된 '디즈니 인 콘서트'를 5월 10일~11일 양일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감사 입회에서 전산 추첨을 해야 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던 이번 행사는 200여 명의 조합원 가족께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또 가족과의 특별한 시간을 더욱 빛내기 위해 프로그램북도 선물했다.



눈·코·입이 즐거운 시간! 쿠키 클래스 운영

5월 17일과 20일 양일간 강남세브란스 조합원을 위한 쿠키 클래스를 진행했다. 노동조합 창립 65주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쿠키 클래스에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추첨으로 뽑힌 18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언어 후토마끼 등 일본 가정식 요리와 우렁강된장 등 집들이 초대 요리를 배워 요리해 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공공연대노련 하루교육 및 대선 후보 지지 선언

5월 23일,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열린 공공연대노련 하루교육에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했다. 하루교육은 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개혁(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노동조합과 대외협력 지역 활동(김기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법(구동훈 노무사) 등의 교육으로 채워졌으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주 4일제, 사학연금 교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올바른 의료개혁 등의 정책협약을 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교섭요구안을 보고하는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노동조합은 5월 29일 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노동조합은 간부·대의원에게 교섭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향후 교섭 계획을 나눴다. 또 대회를 마친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병원 현장이 개선되고, '노동 존중 대한민국'이 실현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함께 약속했다.



노동인권, 힐링하며 배워요! 제주 조합원 교육 완료

6월 25~27일, 조합원 70여 명과 함께 2차 제주 조합원 교육에 다녀왔다.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규모 있고 깊이 있게 소통하고, 조합원은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로 제주 조합원 교육을 기획하고 매년 3~4차례 조합원 교육을 다녀온다. 제주 조합원 교육은 4.3평화공원 참배, 노동교육, 노동조합 소개와 힐링 프로그램을 밸런스 있게 담아 조합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



모기 기피제 모빌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운영

7월 4일, 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창립 65주년 기념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1차 원데이 클래스로는 모기가 싫어하는 에센셜 오일을 넣은 비누를 모빌처럼 만든 모스큐브를 만들었다. 원데이 클래스는 앞으로 2차례 더 진행되며, 공예로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조합원께 선사할 계획이다.



맛있게 드셨나요? 세브노조 조합원 생일밥상

7월 21일은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이다. 노동조합은 오랜만에 종합관 식당에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조합원 생일밥상을 준비했다. 미역국, 돼지갈비찜 등 푸짐한 상을 준비해 대접했다. 다만 직원식당이 협소해 별도 식사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강남과 용인을 비롯해 신촌에서도 21일 식사가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서는 별도 쿠폰을 마련해 선물했다. 노동조합 창립 65주년 선물로는 스노우피크 슬링백을 준비해 조합원께 배포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20년의 기록, <공감> 표지전

2006년 1호를 시작으로 72호까지 이어오고 있는 노동조합 매거진 <공감>의 역사를 창립 65주년을 맞아 되짚어봤다. 노동조합은 7월 14일부터 3주간 세브란스 종합관 2층에서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매거진 <공감> 표지전을 열었다. 전시에는 71개 호의 표지를 모아 펼치는 한편, <공감>의 지난 콘텐츠를 ▲우리 현장, ▲의료계, ▲대한민국, ▲우리 역사 섹션으로 나눠 소개했다. <공감> 표지전은 매거진뿐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의 역사를 돌아보는 귀중한 자리로 많은 조합원들의 관심 속에 8월 1일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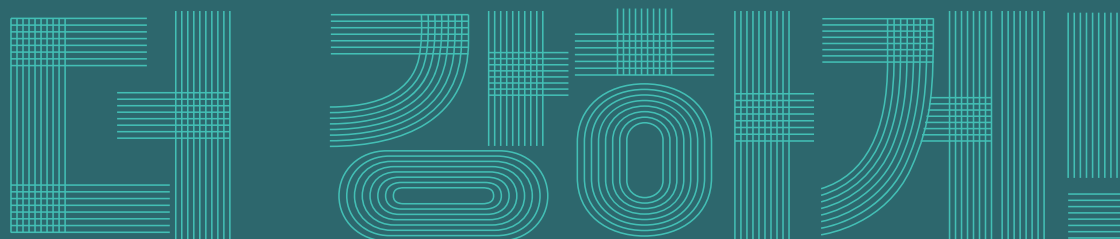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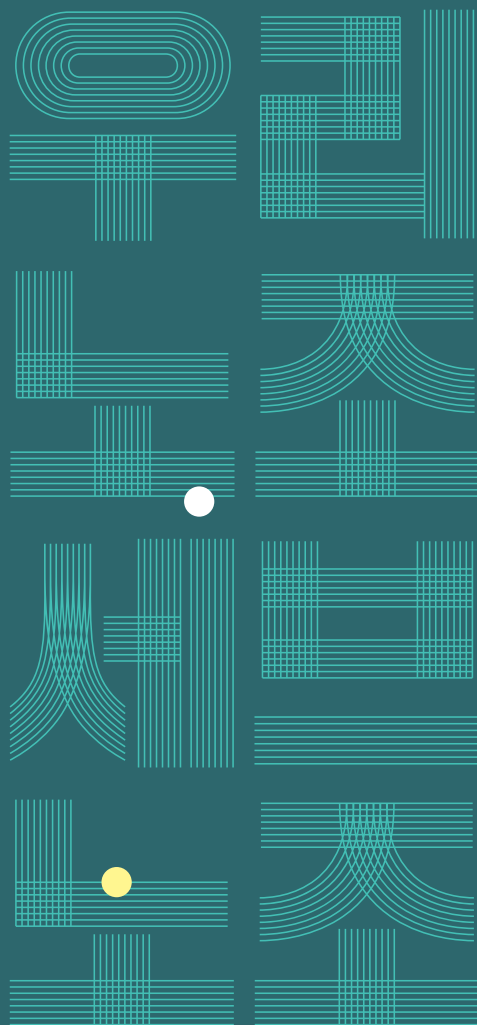


세브노조는 매달 급여일에 노동조합 활동 소식을 정리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모든 활동 소식을 담지 못한 나머지 소식은 뉴스레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세브노조 뉴스레터 S-Picker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창립 65주년 기념 행사

병원에 있는 사람 모두가 즐긴 7월의 축제

7월 16일, 세브란스 본관은 세브노조의
창립 65주년을 축하하는 분위기로 온종일 축제였다.
오전에는 임시대의원대회가, 점심에는 가수들의
미니콘서트가, 오후에는 창립기념식이,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회가 열렸다.
조합원들뿐 아니라 조합원 가족과
내·외빈 축하객, 환자와 보호자,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한데 어우러져
노동조합이 맺은 결실과 기쁨을 함께 나눴다.



#환우와 함께하는 미니콘서트

한창 진행 중인 교섭 현황을 공유하는 열띤
임시대의원대회가 끝나고, 6층 김지희라운지는
일찍이 자리를 메운 환자와 보호자들로
복적였다. 링거 폴대를 끌고 온 환자들부터
배우자·부모님·자녀를 휠체어에 태우고 온 보호자,
일찍이 식사를 마치고 온 교직원,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무대를 에워쌌다.

가장 먼저 축하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가수는 하림.
피아노와 하모니카를 직접 연주하며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위로', '난치병' 등을 부르며
병환으로 지친 환자들을 위로해 주었다. 세브노조
창립을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작곡한 노래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연세대 성악과 전공자들로 구성된 오페라팀이 무대에
오르자 라운지는 잠시 오페라하우스로 바뀌었다.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이탈리아 가곡 '오솔레미오',
'축배의 노래'뿐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 같은 희망찬



노래가 메아리치자, 관객들은 열화와 같은 박수로
호응했다.

2년 전 세브노조의 창립 63주년 행사 때도 축하해
주었던 이한철밴드도 다시 찾아주었다. '슈퍼스타',
'산책' 등으로 관객의 떠창을 이끈 이한철은 얼굴에
붕대를 감고서도 뜨거운 합성을 보내준 환자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었다. 환자는 "월요일에 항암
수술하고 와서 회복 중인데, 평소 보고 싶었던
가수들을 봐서 기쁩니다!"라고 외치며 기쁨을 마음껏
분출했다.



#세브노조 창립 65주년 기념식

미니콘서트로 뚫어오른 분위기의 배턴을 이어 받아 은명대강당에서는 창립 65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다. 극단 '경험과 상상'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 기념식은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사태 속에서도 의료현장을 지켜온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조합원에게 '단결상', '든든한 동지상', '행동하는 조합원상'이 수여됐으며, 부상으로는 윤석열 탄핵 집회의 키세스단을 그려 화제가 된 이정현 만화가의 책이 증정됐다.

권미경 위원장은 "병원계 최초 노동조합으로서 65년 동안 강제 해산도 있었고, 28일 파업이라는 기록도 있었고, 10년이다 되어가는 분열의 상처도 있었다"라며 "좋은 싫든 지난 영광과 상처가 있었기에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던 만큼 넘어져도 돌멩이 하나라도 주우려는 옛말처럼 다 품고 미래를 향해 노동조합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기념식에는 금기창 의료원장 등을 비롯한 각 병원장과 처·실·국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한국노총을 비롯해 연합노련, 금속노련, 전력연맹, 보건의료노조 성모병원지부, SK텔레콤노조 등 산별·단위 노동조합에서도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또 전태일재단, 김복동의희망, 매일노동뉴스 등 그동안 노동조합이 함께 연대해온 기관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성남 중원, 전 세브노조 위원장), 김동아 의원(서대문구 갑), 박홍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들도 온 마음을 다해 세브노조의 창립 65주년을 축하해 주었다.





#조합원 가족 초청 한여름밤의 음악회

창립기념식을 마치고 한 템포 쉬어간 후, 오후 6시부터는 현악 4중주로 이뤄진 콰르텟엑스의 클래식 연주회가 열렸다. 노동조합에서 준비한 김밥을 나눠 먹은 조합원과 가족들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에 두 번의 앵콜과 기립박수를 보낼 정도로 연주에 흠뻑 빠지는 시간을 가졌다.

콰르텟엑스는 비발디의 '사계'를 시작으로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파헬렐의 '캐논', 하이든의 '조크',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 15번',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인형'과 '갈대피리의 춤',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드보르작의 '아메리칸' 등을 짧게 편곡해 클래식 역사 속 대표곡들을 들려주었다. 특히 리더인 조운범 바이올리니스트가 곁들이는 작곡가들의 히스토리와 재치 있는 말솜씨는 곡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다.

조합원들은 "언니, 음악회 너무 좋았어", "클래식 공연인데, 하나도 안 지루했어", "엄마네 노동조합에서 이런 것도 보여주고 좋다"라는 칭찬을 가족들에게 받으며 은명대강당을 빠져나왔다. 오늘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한 집행부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한 조합원들은 '함께 더 강한 세브노조'가 되는 데 기꺼이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함께해서 더욱 즐거웠던 문화 행사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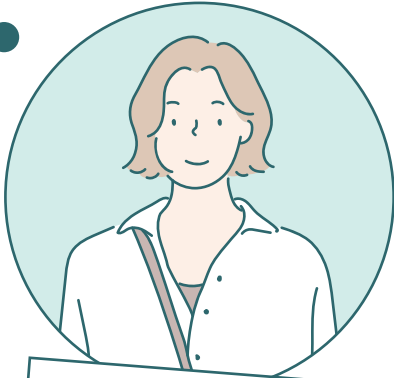
몸은 떨어져 있어도 창립 65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은 같아요!

근무지가 지역별로 다른데다 교대직군이 많은 우리 병원의 특성상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다. 조합원들이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서 노동조합 창립 65주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병원별로 문화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세브노조라는 이름 아래 함께해서 더욱 즐거웠던 조합원들의 순간을 살펴보자.



이렇게 예쁜 모빌이 모기 기피제라고요?

‘모스큐브’ 원데이 클래스



심우희 조합원 | 세브란스 국제환자진료파트
 참여비 1만 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퀄리티인데다가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조합해 만드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몰드도 많고 색도
 다양해서 이것저것 만들어볼 수 있었어요.
 여차하면 이미 만들어진 모형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망치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집에 인테리어용으로 걸어뒀는데
 포인트가 돼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똥손인데도 만드는 게 어렵지 않고 잘
 도와주셔서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김정은 조합원 | 용인세브란스 의무기록파트
 용인에서 처음으로 열린 원데이 클래스!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지친 하루를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의 창립 65주년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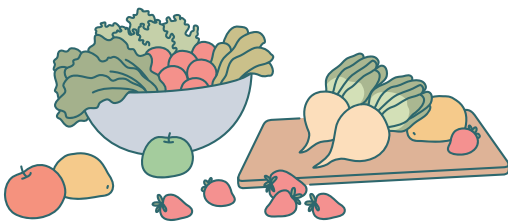


오! 우리 조합원들의 솜씨 맞나요?

‘가정식 요리’ 쿠킹 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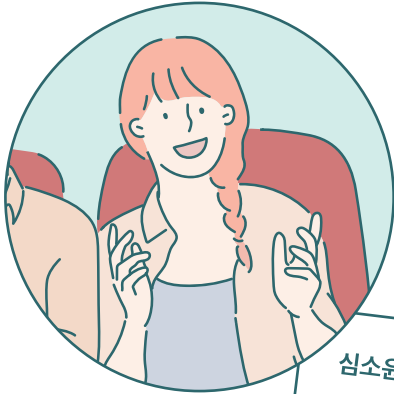
강나루 조합원 | 강남세브란스 마취회복파트

노동조합에서 주최한 쿠킹 클래스는 처음이었는데, 강남의 유명 요리학원이라고 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평소 요리를 좋아하지만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었는데, 강사님의 설명과 팁을 듣고 해보니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부서 선생님들과 함께하니 재밌게 얘기도 나누고 서로 요리하는 것도 봐주면서 즐겁게 ‘연어 후토마끼’와 ‘어묵우동’을 완성했습니다. 모양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맛도 훌륭해 서로 감탄하면서 맛보았습니다. 남은 건 포장해서 아이에게 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엄지 척!’ 해주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 부서원들도 꼭 참여하도록 알려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더울 땀 시원한 영화관에서 감상하는 영화가 최고!

영화 '킹 오브 킹스' 단체 관람



심소윤 조합원 | 강남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세브노조의 창립을 기념하며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극장으로 걸어가는 조합원들을 보며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노동조합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극장 상영관으로 들어서는데 맛있는 핫도그와 콜라, 거기에 팝콘까지 나눠주셔서 배고픔을 달래면서 더위도 식힐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행사를 통해서 조합원들 얼굴 보고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다 같이 영화 보고 간식을 먹으며 공감대를 나누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연대하는 분위기 덕분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이 더욱 크게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영화는 제가 이전부터 보고 싶었던 영화였기에 더욱 좋았습니다. 함께하는 힘을 알기에 앞으로도 노동조합의 여러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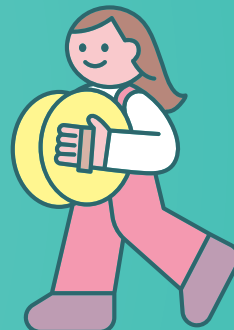
세브노조 창립 65주년 기념
가족 초청 행사
**Disney
in Concert**

하루하루 바쁜 병원 생활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우리 조합원들.
그래서 세브노조가 가족들을 초청하는
문화 행사를 마련했다죠?
디즈니 명작의 오케스트라 연주에 흠뻑 빠졌던
조합원들의 5월 주말 풍경을 함께 볼까요?



세브노조 카카오톡

*평상시 조합원분들의 일상을
세브노조와 나눠 보세요.
선정된 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1잔)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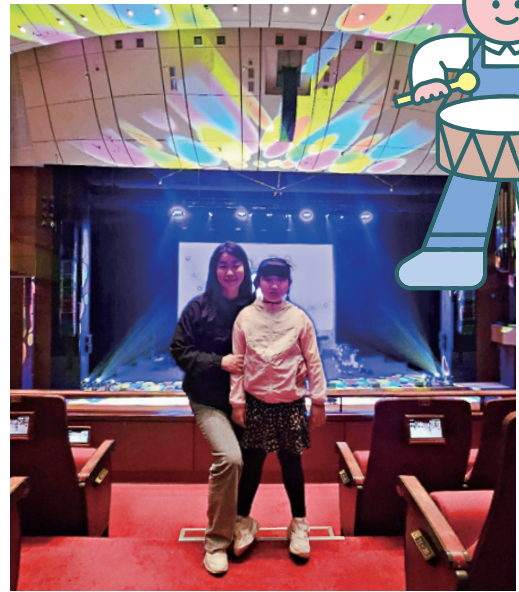
강남세브란스 61병동 강정아 조합원

너희들 덕분에 엄빠도 문화생활!! 추억여행했넹.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뮤배님들의 공연도 모든 것이
라이브라 감동이 2배...!!
#디즈니인콘서트2025 #세종문화회관
#세브란스노동조합 #노조덕분에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창립65주년 #세브노조
#주4일제 #화이팅





세브란스 사무처 시설관리팀 박덕규 조합원
 아이들이 보고 싶어했던 공연인데~~ 노동조합 창립
 65주년 기념 공연을 기획해 주셔서 넘 감사드리며
 가족과 함께 즐겁게 관람하겠습니다!! ^^
 항상 조합원을 위해 힘 써주심에 감사드리며
 65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창립65주년
 #세브노조 #주4일제 #화이팅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조금식 조합원
 8살 딸아이, 남편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멋진 공연이었어요. ^^ 내일이 생일인데 미리 선물
 받은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공연 전에 유튜브로
 디즈니 명곡을 딸아이와 수시로 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는 웅장했고, 뮤지컬 배우들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수고 많으셨어요.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창립65주년 #주4일제
 #화이팅입니다



siyoonje 노동조합 덕분에 어린이날&어버이날 모두를 기념하는 가족 행사가 되었어요.^^
 특히 저희 할머니가 아이처럼 좋아하셔서 특급 효도가 되었습니다. ㅋㅋ 정말 감사드립니다.

jjanhoo 사춘기 아이들과 가는 내내 시큰둥한 반응에 걱정 가득이었는데, 공연 후에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제 생일을 까맣게 잊은 남편 때문에 속상할 뻔했는데 그나마
 디즈니 공연이 가족들에게 오래 기억될 추억으로 남아 여러모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창립 기념 행사를
연중 운영하는 까닭은?

가끔 보면
안 보여요,
가까이
자주 보면
보여요

무엇이든

알려드리중!



노동조합이 올해 창립 65주년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여 매달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코 단순한 화려함이나 일회성 축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면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진정한 가치와 이유를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새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년 내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리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글 이종민 노동안전국장

65년이라는 긴 시간은 사람의 인생에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숫자 '65'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과 같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 또한 65년의 긴 여정 속에서 쌓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과와 도전을 되돌아보며, 더욱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함께 준비할 때입니다.

자주 만나고 소통하다 보면 이해하게 되니까

최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연대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Z 세대라는 이름 아래 세대 간 갈등이 부각되고, 정치적으로 젠더 이슈와 같은 문제들이 사회를 갈라놓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 간의 신뢰와 소통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병원 내부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제도가 사라진대거나, 명예급이 줄어들거나, 장기근속 포상이 폐지된다거나, 휴가 보상비가 중단된다는 식의 허위 사실들이 난무하며 조합원 사이의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와 억측을 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자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조합원 간 신뢰가 끈끈한 진정한 의미의 단결

노동조합은 오랜 역사 속에서 조합원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소중함을 자주 잊어버리듯 노동조합 역시 그 존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65주년을 맞아 우리 노동조합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단결된 힘'입니다. 개인의 힘은 작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쳤을 때 만들어내는 힘은 엄청납니다. 사업주와의 협상에서 대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진정한 단결을 이룰 수 없습니다. 조합원 간의 깊은 신뢰와 소통,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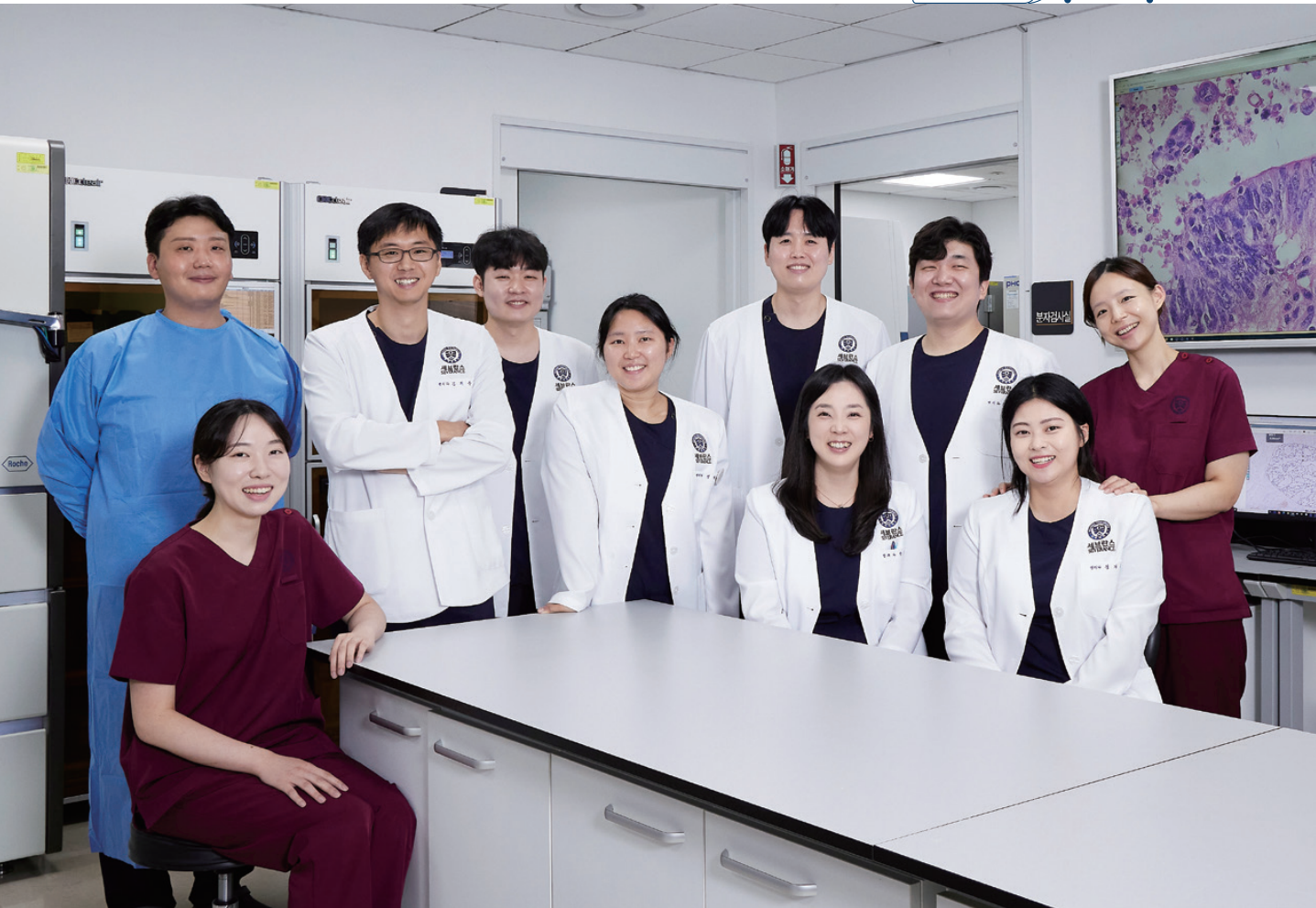
65년 노동조합의 주인은 바로 우리, 조합원

집행부에서는 올해 다양한 조합원들의 요구와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한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2개월마다 열리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꾸준히 대의원들과 소통하고,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영화 <초혼> 단체 관람과 마라톤 대회 참가, 알찬 하루를 만들어가는 윈데이 클래스, 가족과 함께하는 디즈니 뮤지컬 관람, 직원뿐 아니라 환우들까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미니 음악회, 품격 높은 클래식 공연, 그리고 직원 식당에서의 생일상 이벤트까지 다양한 기회를 통해 서로가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잠월드 진로캠프와 상반기에 두 차례 진행된 2박 3일간의 제주도 조합원 교육을 통해 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이 직원과 환우, 그리고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고민과 삶을 함께 나누고 연대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의 65주년은 특별합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조합원 여러분입니다. 노동조합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앞으로의 130주년도 더욱 힘차고 빛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관심이 우리 노동조합의 내일을 밝힐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길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의 빛나는 내일은 바로 여러분과의 연대 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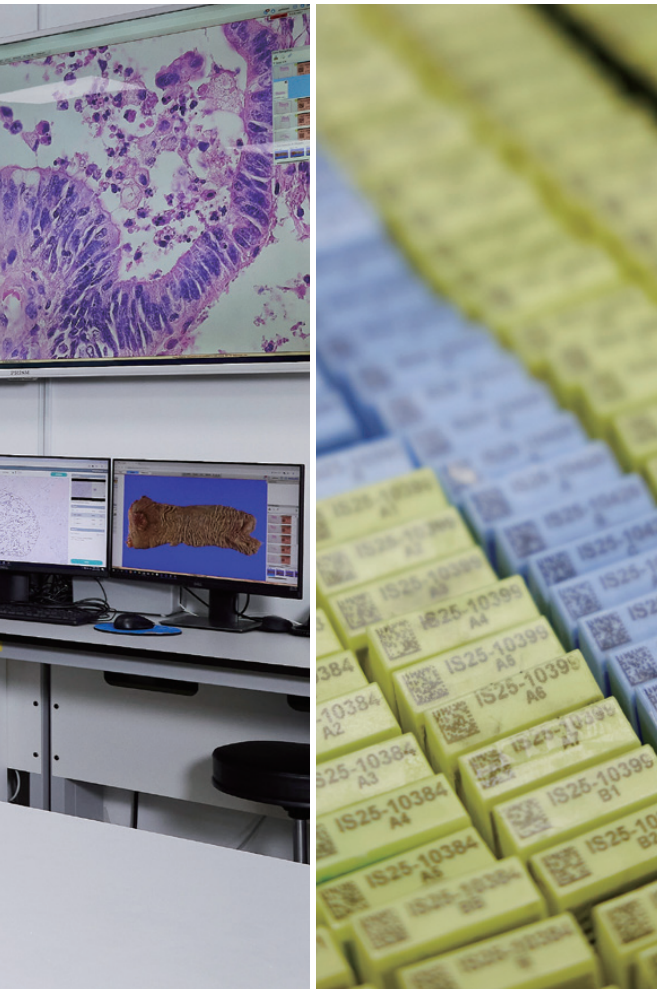
용인세브란스 병리과

4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조직 표본을 만들어내는 스킬 장인들

전문 의료장비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병리과. 과 안에는 육안검사실, 조직검사실, 세포검사실, 분자검사실, 판독실, 면역검사실 등 구역이 여러 개 나뉘어 있다. 한 조합원은 암 환자의 조직을 칼로 자르고, 한 조합원은 카세트라는 작은 기구에 파라핀을 채우고 있다. 흡사 실험실이 연상되는 이곳은 용인세브란스의 병리과다.



병리과는 환자의 질병 의심 부위에서 떼어낸 작은 조직이나 세포, 체액 같은 검체를 받아 조직 세포를 검사하는 부서다. 조합원들은 채취한 조직이 부패하지 않게 특수처리를 하고, 얇게(4마이크로미터 두께) 잘라 유리 슬라이드에 붙인다. 그리고는 미세한 세포의 구조와 특징이 눈에 잘 보이도록 염색해 유리 슬라이드를 완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 슬라이드로 검체 내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세포나 단백질의 발현 양상, 유전자 변화 등을 관찰하며 검사 결과를 전달한다.



검사 결과를 단축시켜준 디지털병리

과거에는 조직검사로 환자의 질병을 판독할 때, 현미경으로 유리 슬라이드를 관찰해야 했다. 만약 해외에 자문을 구할 일이 있을 때는 페덱스와 같은 해외특송으로 검체가 담긴 유리 슬라이드를 보내야 했기에 파손의 위험도 크고 검사 결과를 받는 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용인세브란스 병리과는 개원할 때부터 병리 검사 결과를 이미지화해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병리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진단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 DMZ서버를 통해 환자의 병리 데이터가 익명화되어 전송되기 때문에 외부 자문도 신속하게 가능하다.

조합원들이 검사한 병리 이미지가 서버로 전송되면 전문의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며, 경과 예후나 재발 가능성을 판단한다. 조합원들이 지난해에 시행한 조직검사는 3만 4,000여 건, 세포검사는 1만 8,000여 건에 달한다.



“모든 과에서 저희에게 조직검사를 의뢰하기에 많은 검체를 다루는데, 혈액은 다시 생성되어 재검할 수 있지만 조직 세포는 저희가 잘라내고 나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신중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습관인 것 같아요.” 강남세브란스에서 일하다가 용인세브란스가 이전 개원할 때 왔다는 맹효선 조합원은 병리과 임상병리사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 덕분에 검사 정확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다른 병원의 검사지를 가지고 저희 병원에 온 환자 중에 최초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발견해 치료 방향이 바뀔 때는 희열감이 무척 클 정도로요.” 15년 이상 경력의 세포검사실 김제완 조합원은 병리과 임상병리사로서의 전문성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병리 역량

조합원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용인세브란스 병리과의 역량은 국내·외 최고 수준이다. 정도관리평가에서 늘 A등급을 받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맹효선 조합원은 해외 각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UK NEQAS(병리검사 분야에서 권위있는 영국의 질 관리 평가제도)에서 3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의 질 관리평가를 했는데, 저희 병원이 상위 2%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저희 병리과를 찾아오고 있어요.” 상위 2%를 차지한 비결은 뭘까. 김제완 조합원은 개개인의 스킬을 꼽았다. “칼로 검체를 자르고 마이크로톰으로 커팅하는 일은 매우 섬세한 스킬과

집중력이 요구돼요. 전문 의료장비가 많으니까 걸보기에는 장비 의존도가 높을 것 같지만 그 장비들이 정확한 검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표본을 만들어 검사하는 사람의 스킬이거든요.” 뛰어난 스킬을 가진 10명의 임상병리사와 검체 접수를 지원하는 2명의 기능원은 용인세브란스의 우수성을 증명해내는 주역들이다. 12명의 팀원들은 검사 결과가 정확해야 임상에서 환자의 치료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사명감으로 매 과정 검사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 때는 웃음소리가 넘치지만 일할 때는 고도의 집중력과 뛰어난 스킬로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조합원들. 오늘도 4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표본을 일정하게 만들어내며 섬세한 스킬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공감〉의 ‘부서탐방’에서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메일 severancetu@yuhs.ac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AI 시대에 걸맞은 근로제에 대한 논의 주 4일제 사회로의 전환

우리 세브노조의 단체교섭으로 촉발된 주 4일제가 새 정부의 공약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있다. 기업의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노동시간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논의해볼 때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노동 공약으로 '주 4일제'가 언급될 때만 해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지 않았다.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하지만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주 4일제를 활발히 논의해 보자는 반응이었다. 불과 3년 사이에 챗GPT, 자율주행, 휴머노이드로봇 등 AI 기술이 고도화되어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음을 노사 모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금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과거 주 5일제가 그러했듯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정착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기에 지금의 논의가 이르지 않다는 분위기도 자리잡고 있다.

연도	2023년(1기)	2024년(2기)	2025년(3기)	2026년(4기 요구안)
대상	신촌 2개, 강남 1개 병동	신촌 3개, 강남 2개 병동	신촌 3개, 강남 2개 병동	신촌 10개, 강남 5개, 용인 3개 병동
인원	부서별 5명	부서별 5명	부서별 5명	부서별 10명
기간	6개월씩	6개월씩	6개월씩	최대 12개월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10% 조정 ≡ 1.5명 인력 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10% 조정 ≡ 1.5명 인력 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10% 조정 ≡ 1.5명 인력 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10% 조정 ≡ 1.5명 인력 총원 ≡ 특수 부서 포함 ≡ 상근근무자의 급여 손실 없는 격주 4.5일제 운영

우리 병원의 긍정 사례가 주는 확신

주 4일제 논의에서 우리의 시범사업은 늘 대표 사례로 언급된다. 참여 교직원의 높은 만족도와 해당 병동의 퇴사율 감소, 덩달아 증가한 환자 만족도가 노동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사무직이나 공장 중심의 사업장이 아닌 환자 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3교대 병원에서의 안정적인 운영은 주 4일제가 다른 산업으로 확장되어도 무리가 없다는 데 확신을 주고 있다.

실제로 우리 병원의 주 4일제 시범 운영 이후 격주 4.5일제, 월 1회 4일제, 1일 6시간 근로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 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늘어났다. 최근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간호직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의료계의 주 4일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사회 변화에 걸맞은 근로제의 필요성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완화는 단순히 노동자의 워라밸 향상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요구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휴무일이 따로 없었지만 공장 자동화로 주 6일 노동으로, IT 정보기술의 발달로 주 5일 노동으로 사회가 재편된 것처럼 인공지능사회에 걸맞은 근로제가 필요한 것이다.

주 4.5일제를 시작으로 주 4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처럼 우리 병원 역시 장시간노동 관행을 타파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처음 시범사업을 운영할 때보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우리의 단체협약이 장시간노동 문화를 바꾸는 선례가 되어 사회 전환을 앞당기길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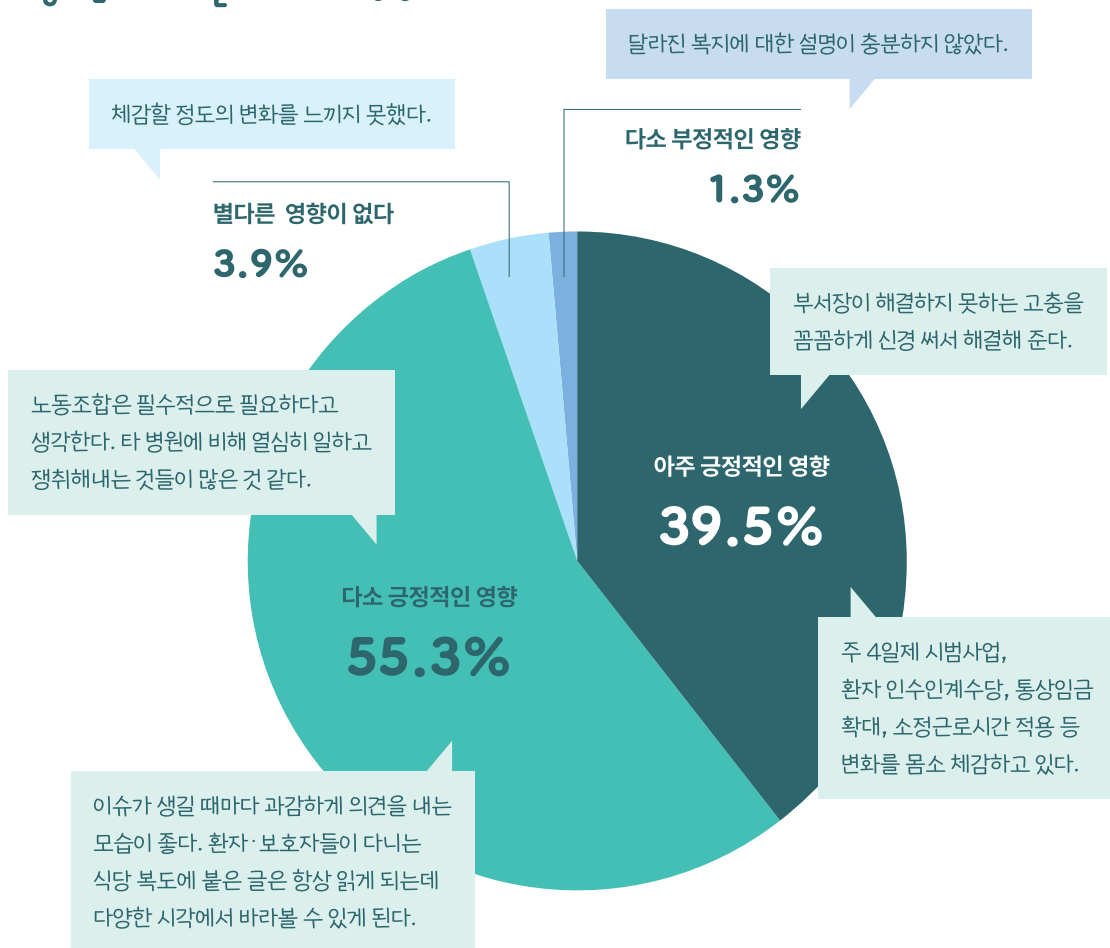


세브노조와 함께 만든 일터의 변화, 얼마나 느끼고 계세요?

65년 역사의 우리 세브노조는 긴 세월 조합원들과 함께 크고 작은 결실을 만들어왔다.
사업장이 지역별로 떨어져 있는 데다 다양한 직군이 공존하다 보니 모두를 만족시키긴 어렵지만,
해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앙케트로 알아봤다.

기간 2025.7.7.~7.17. | 참여 76명

노동조합이 우리 일터에 미친 영향



체감할 정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
3.9%

노동조합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타 병원에 비해 열심히 일하고 쟁취해내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다소 긍정적인 영향
55.3%

다소 부정적인 영향
1.3%

달라진 복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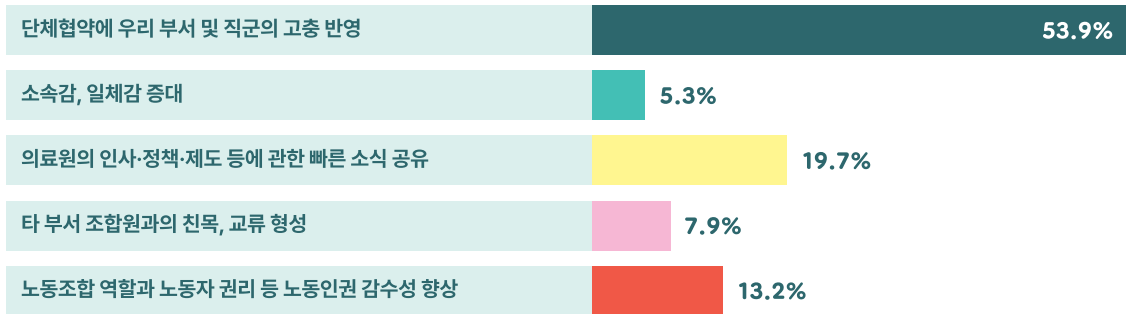
부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충을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해결해 준다.

아주 긍정적인 영향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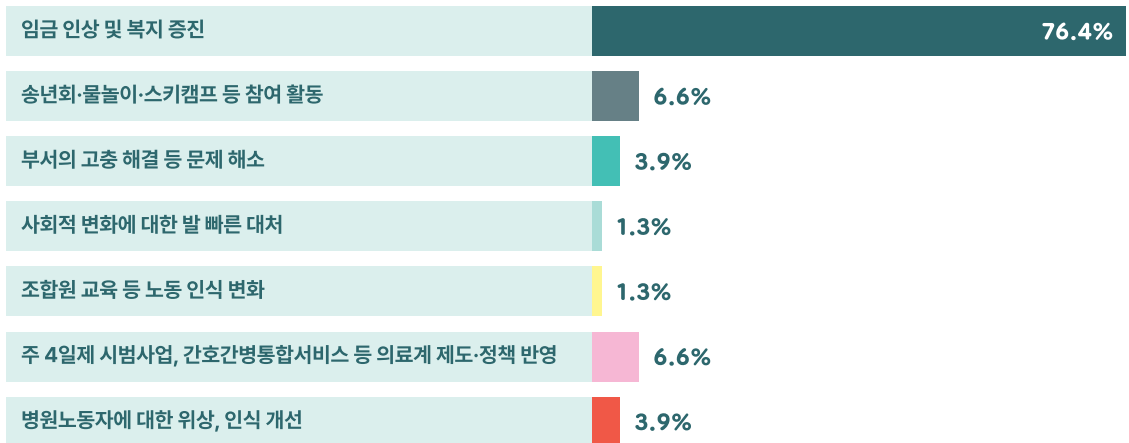
주 4일제 시범사업, 환자 인수인계수당, 통상임금 확대, 소정근로시간 적용 등 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있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과감하게 의견을 내는 모습이 좋다. 환자·보호자들이 다니는 식당 복도에 붙은 글은 항상 읽게 되는데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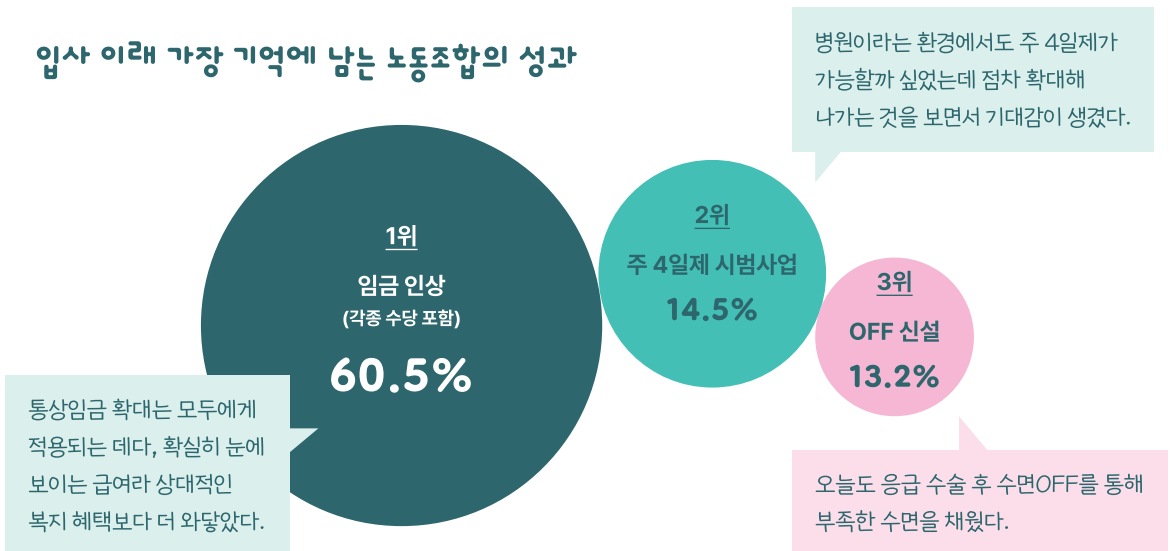
조합원이 된 후 가장 만족스럽게 느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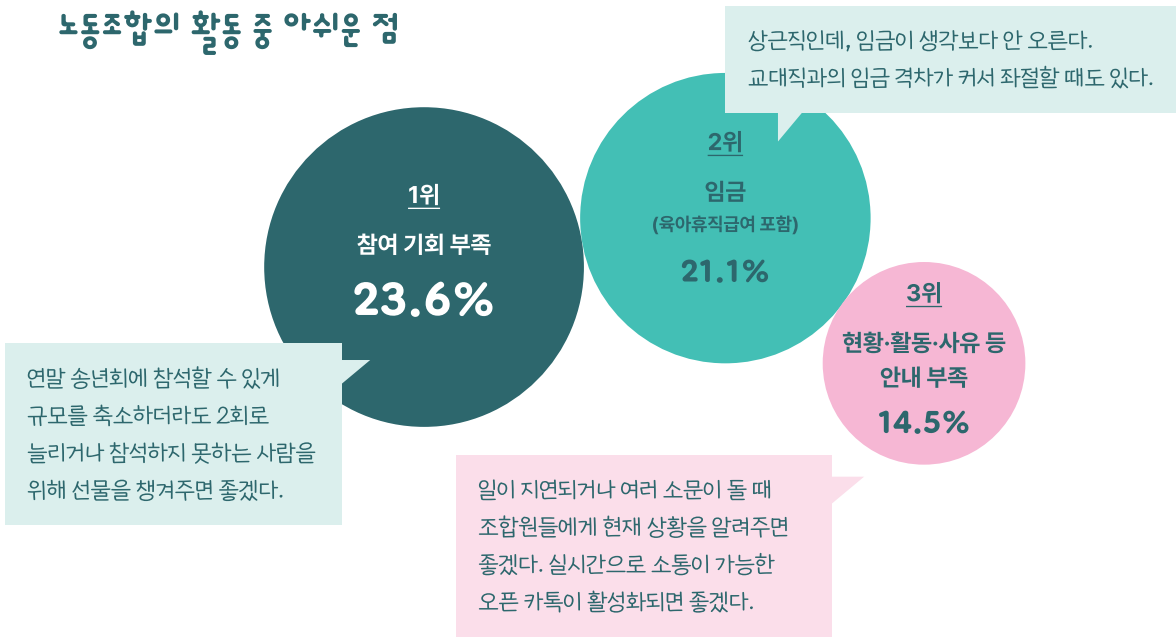
노동조합의 활동에 효능감을 느낄 때



입사 이래 가장 기억에 남는 노동조합의 성과



노동조합의 활동 중 아쉬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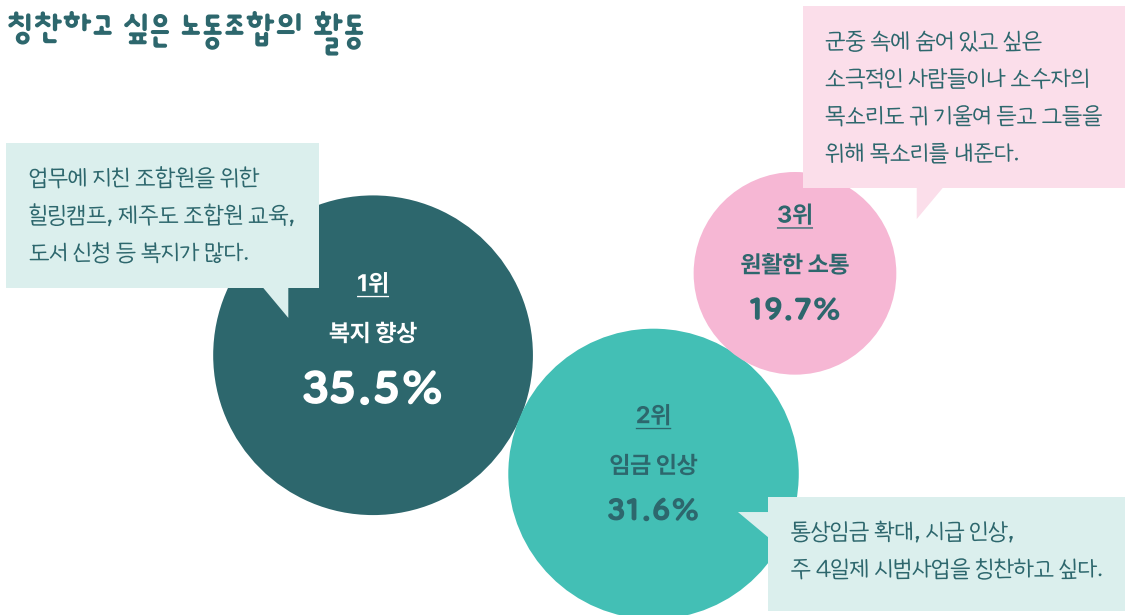


그 외 의견

특정 직군에 편향된 정책이 좀 있는 것 같다.

신촌, 강남, 용인 병원별로 복지 수가 차이 나는 느낌이다.

칭찬하고 싶은 노동조합의 활동



그 외 의견

다양한 직군의 화합에 노력한다.

나도 몰랐던 부당한 일을 찾아내고 대변해 준다.

창립 65주년을 맞아 노동조합에 하고 싶은 말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조합원을 대표하여 꾸준히 사측과 타협해 성과를 쟁취해내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조합원이 많을수록
우리의 발언이 세지고
복지가 좋아짐에도 탈퇴를
저지하기가 힘듭니다.
조합비도 안 내면서 임금
협상 혜택을 비조합원까지
받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조합원만을 위한
복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길을
잘 지나왔으니 가입자가 많아져
더더욱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합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사실 비조합원이 혜택을 보는 것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6월 제주도
조합원 교육 때, 내가 낸 조합비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굳이?’에서
‘기꺼이!’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모두가 알 수 있게 부서마다
강사님께서 1년에 1번씩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년의 역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무게만큼이나 앞으로의 걸음도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세대는 노동조합의 미래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언어와 고민에 공감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어주세요.

더 뭉치고 하나 되어 일할 맛 나는 병원 되길!

조합원임이 자랑스러운 노동조합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 양케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당첨된 아래 10명에게는 시원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안O경 조합원 010-****-9615	이O용 조합원 010-****-4520
조O아 조합원 010-****-8178	이O교 조합원 010-****-8743
이O만 조합원 010-****-4628	유O윤 조합원 010-****-2570
김O영 조합원 010-****-5701	차O리 조합원 010-****-1909
전O진 조합원 010-****-3260	김O진 조합원 010-****-1304

비상계엄, 탄핵, 파면, 조기 대선, 임단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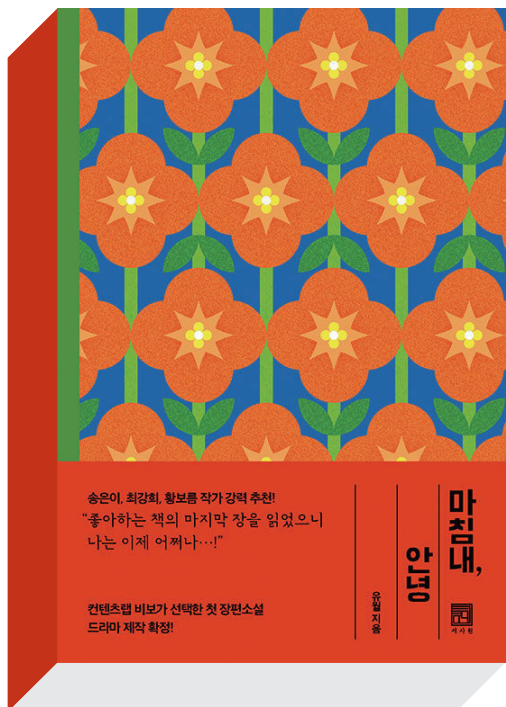
숨 가뻐던 나날의 심포, 여름 힐링 도서

지난겨울,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하루라도 속보를 챙기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국가 기능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임단협도 점점 가시화되는 요즘, 숨 가뻐던 지난날은 잠시 접어두고,
힐링 도서와 함께 이 여름을 차분하게 보내 보자.

마침내, 안녕

누구나 아픔을 공감받고 싶은 순간이 있다

유월 지음 | 서사원 출판



법원의 가사조사관인 된 주인공 도연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떠맡으며 이혼, 가정 폭력, 재산 분할 등 각종 사건을 접한다. 나쁜 부모라도 기댈 곳이 없기에 결국 나쁜 부모를 용서하는 아이, 엄마의 재혼으로 새아빠 성으로 바뀌어야 하는 아이, 갑작스러운 조현병으로 가족을 잃게 된 가장 등 여러 가정의 불행을 조사해야 하는 주인공은 '타인의 인생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일'이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 같다"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주인공은 오랜 시간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어두운 과거와도 이별하게 된다.

이 책을 신청합니다 ✨

최남희 조합원 강남세브란스 이비인후과

예상치 못한 힘들어 찾아올 때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힘들어 온전히 마주하고 회복하는 지혜를 책을 통해 알아가고 싶습니다.

첫 여름, 완주

슬퍼도 무너져도 각자 완주해내는 완주 마을 사람들

김금희 지음 | 무제 출판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위해 영화 자막을 읽어주다 프리랜서 성우가 된 주인공. 그런데 절친한 룸메이트 선배가 빛을 갓지 않고 사라지자 목소리가 떨리고 나오지 않아 일이 끊기며 생활고에 시달린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선배의 고향인 완주 마을을 찾았다가 선배 어머니가 운영하는 매점에 놀러앉아 여름을 난다. 매점에서 각양각색의 이웃을 만난 주인공은 완주 마을 사람들의 온정을 느끼면서 다시 세상에 나설 용기를 찾는다. 이 책은 원래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으로 출시된 만큼 등장인물들의 대화가 희곡처럼 쓰여 있어 색다르게 읽는 재미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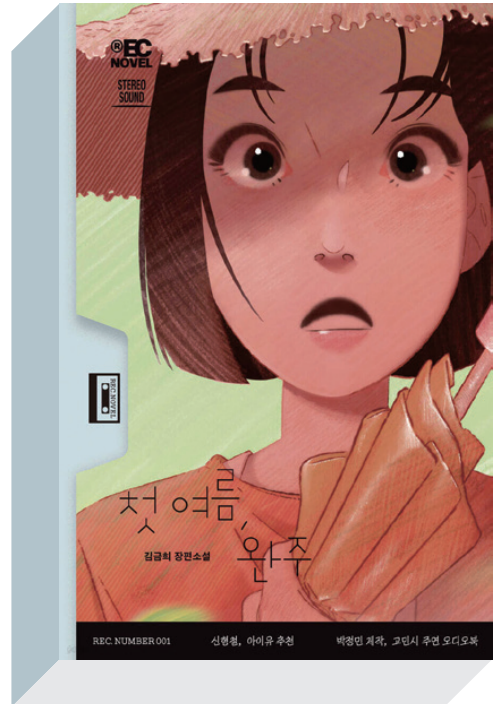
이 책을 신청합니다

정영애 조합원 연세암병원 95병동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자아발전을 위해서 연초에는 항상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 보지만 중간도 못 가서 뼈거덕 거리고 계획했던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슬프고 힘들어도 완주해나가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 책의 제목처럼 저도 올여름 저의 목표와 계획을 꼭 완주해 보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선영 조합원 강남세브란스 중환자실

요즘 마음이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저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해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운 날도 많아요. 그런 가운데 <첫 여름 완주>라는 제목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낯설고 숨 막히는 계절을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걸어낸 이야기가 지금의 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는 치유의 인생 문장들

전승환 지음 | 북로망스 출판



내 마음과 감정 상태를 읽어주는 문장을 만나면 그 자체로 위로받을 때가 있다. 북 테라피스트인 저자는 인문, 동서양 고전, 철학, 역사, 시, 소설, 에세이 등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며 모아둔 ‘문장’ 150여 편을 인용해 인생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전한다. 삶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저자가 제시해 주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느라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했던 이들에게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기존 ‘문장’으로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책이다.

이 책을 신청합니다

조성진 조합원

웅인세브란스 수술임상전담간호파트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맡습니다. 직원, 남편, 아빠, 친구, 아들 등등. 다양한 역할을 맡지만 모두 수동적인 역할들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이가 마흔이 되도록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성하 조합원

세브란스 방사선안전관리실

정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상 항상 긴장 속에서 일합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업무의 무게에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 책이 저처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순간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잊고 있던 나를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책 속 치유의 문장들이 내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읽고 싶습니다. 나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삶의 방향성을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어요

노동조합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선정 도서는 노동조합 뉴스레터를 통해 공지하며, 뉴스레터를 통해 도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처 도서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원은 노동조합 조합문고에서도 대여 가능하니, 꼭 함께 읽어요!

[안내] 당첨자 발표 후 2개월 내 찾아가지 않은 도서는 조합문고로 이관됩니다.

세브노조열차 출발합니다
노동자는 모두 탑승해 주세요

병원계 1호 노동조합인 우리 세브노조는 저평가됐던 병원노동자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장시간노동 관행을 타파해줄 주 4일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65년간 달려왔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병원 단체협약에 대한 이정표를 수없이 만들어온 만큼
 이제는 ‘유니온숍’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무임승차자 없이 모든 교직원이 노동자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환자뿐 아니라 노동자 만족도도 높은 병원으로 우뚝 서길 바라기 때문이다.



세브노조열차
 탑승하기

249명 태운 꼬마 열차에서 5,500명 태운 특급 열차로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건 1953년이다.

하지만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산업화가 진행되어 이를 지키는 고용주는 없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면 해고·징계·차별·배제 등 불이익으로 노동자를 탄압했다.

그럼에도 1960년에 용감하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열차에 탑승한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병원계 최장,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 창립 65주년을 맞아 65년 역사 속에서 세브노조열차에 오르고 내린 조합원들을 숫자로 살펴본다.

1960.7.21.



1961.6.2.

1호차에 249명 태우고 출발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4·19혁명이 일어났던 1960년, 김명재 초대위원장 등 6명은 부당한 노동에 항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도모했다. 설립준비위원회에 가장 먼저 연대 의사를 밝힌 이들은 식당과 세탁부 노동자들. 이들의 지지 속에 7월 21일 에비슨관 강당에서 정식으로

‘세브란스병원종업원노동조합’이 발족했다. 노동조합은 당일 저녁 설립총회를 열어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 활동의 기틀을 만들었다.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열차 운행 강제 종료

노동조합이 설립됐지만, 임금 협상과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은 난항을 겪었다. 교섭을 요구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1960년 11월 9일에 역사적인 첫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단체협약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초대위원장 등 4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모든 정당, 사회단체, 노동조합을 강제 해산한다는 「국가재건회의 포고령 제6호」에 따라 노동조합은 6월 2일 해산되는 아픔을 맛봐야 했다.

1963.2.9.

180여 명 태우고 다시 출발

노동조합 강제 해산 속에서도 노동자 권리를 찾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는 굳건했다. 초대 노동조합에서 임원을 지냈던 조택기 총무부장과 이근호 조직부장 등이 주축이 되어 노동조합 재창립을 준비했다. 노동조합은 2월 9일 18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노동조합 재결성대회를 갖고, 전국연합노동조합(현 한국노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 세브란스병원 종업원지부'로 노동조합을 재건했다.



청소 노동자 37명, 원주기독병원 노동자 217명 탑승

병원 측은 취업규칙을 부당하게 바꾸거나 노동자를 집단으로 해고하는 등 억압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으로 노동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1971년 청소 노동자들이 연대의 뜻을 밝히며 청소분회를 결성, 조직을 키웠다. 1977년에는 원주기독병원에서도 함께할 뜻을 밝히며 분회를 결성했다. 전국연합노동조합(현 한국노총)에 제출한 1977년 12월 20일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연세대학지부 조합원은 473명(전체 노동자 1,600명의 39.6%), 청소분회 조합원은 69명(전체 노동자 80명의 86.3%), 원주기독병원분회 조합원은 131명(전체 노동자 180명의 72.8%)으로 당시 꽤 많은 노동자들이 세브노조와 함께했음을 알 수 있다.

1963.8.5.

350여 명과 최초 파업

노동조합은 재건과 동시에 임단협부터 추진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5년 전과 같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각종 수당을 2년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노사협의를 통해 이를 잘 풀어나가려고 했으나, 병원 측은 외면하고 회피했다. 이에 세브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임금 인상, 체불 임금 지급, 부당 해고자 복직을 결의하고, 8월 5일 35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첫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4시간 만에 중지됐고, 이후 지지부진한 노동쟁의와 중재 과정을 거친 끝에 11월 18일 제88조에 달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고 난 뒤에야 종료됐다.

병원 내 최초 파업에 관한 기사



1971.10.23.



1978.1.

간호 노동자 230여 명 탑승

그동안 노동조합에는 주로 조리·세탁·청소·경비 직군의 조합원들이 가입해 활동했는데, 1978년 한 간호사가 레지던트에게 폭행당한 것을 계기로 간호사 230여 명이 집단으로 가입하면서 병원노동조합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며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1980.9.20.

청소·원주기독병원 노동자 200여 명 분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은 1980년 8월 20일 '노동조합 정화지침'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탄압했다. 노동조합의 몸집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지역지부를 없애고, 지역본부 산하 분회는 단위 노동조합으로 승격·독립시켜 세력을 분산시켰다. 지침에 순응하지 않으면 보안사 등 국가기관으로 연행해 고문을 자행했다. 이에 청소분회는 9월 20일에, 원주기독병원분회는 9월 29일 지부로 승격되어 그해 12월 각각 개별 노동조합으로 독립했다.



각 분원, 연세우유, 본교 노동자 탑승에 1,600석으로 좌석 증설

노동조합의 가입자 수가 확 늘어난 것은 1980년대 들어서다. 1983년에 영동세브란스(현 강남)가 개원하고 용인, 광주(훗날 신촌·강남·용인)로 통합, 인천(1999년에 폐쇄)에 분원이 개원하면서 조합원 가입도 늘어난 것이다. 특히 1987년 7월 노동자 대투쟁(전국적 파업 투쟁)으로 노동운동이 확산되면서 1988년 9월에는 연세우유지부가, 1990년 9월에는 연세대학교 본교 직원지부가 결성됐다. 1988년 기준 당시 노동자의 57.2%(전체 노동자 2,797명 중 1,600여 명)가 세브노조 조합원이었다. 훗날 연세우유지부와 본교 직원지부는 각각 개별 노동조합으로 독립했다.

1988.7.21.



상호 신뢰 속에 4,300석 열차 순행

앞선 총파업으로 상당수의 조합원이 열차에서 하차하는 일도 있었지만, 빠른 노사 관계 회복과 노동조합이 축적한 성과에 대한 믿음으로 어느덧 4,300여 명이 세브노조와 함께하는 날을 맞이했다. 세브노조는 이에 힘입어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간호등급을 상향하거나 출퇴근자동등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고, 복지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조합원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2019.10.7.

2025.7.21.

유니온습행 5,500명 탑승 중

조합원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부침 속에 2023년 조합원 5,000명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열차로 성장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간 희생을 강요받았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 뜻을 함께했고, 의료계에 만연한 장시간노동 체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선 주 4일제 시범사업으로 가입자가 더 늘어나면서 그해 5,500명을 돌파했다. 세브노조열차는 현재 이 5,500 조합원과 함께 유니온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유니온습은 세브노조의 오랜 숙제였던 만큼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는 없지만, 세브노조열차는 유니온습을 향해 운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7.7.9.

3,000시대에 돌입한 최장기 파업

21세기에 접어들어 세브노조는 조합원 3,000시대를 맞았다. 이때 노동조합은 노동의 가치를 더욱 높이 인정받고자 임금 인상, 다면평가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며 2007년 임단협을 추진했다. 하지만 교섭은 결렬되었고, 재적 조합원 3,758명 중 2,700여 명이 파업에 찬성하며 역사상 최초, 최장기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28일 만에 끝났지만, 부당해고와 단식투쟁 등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다. 이로 인해 훗날 노사가 대립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총파업 출정식



세브노조 열차 선로에 조합원과 함께 세운 이정표들

우리 세브노조가 그동안 투쟁 끝에 쟁취한 수많은 단체협약은
병원 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기준이 됐다.
특히 수십 년 세월 동안 의료계에 만연했던 장시간노동, 공짜노동 관행을 타파한 단체협약은
잘못된 노동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의료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주도하며
노동조합의 효능감을 안겨주고 있다.

병원에서 먼저 시도한 근로제 전환 주 4일제 시범사업 시행

결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주 4일제를 3교대
대학병원에서 먼저 나서서 시행한 것은
의료계뿐 아니라 노동계, 국회, 시민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여파는 대선
후보들에게도 미쳐 노동 공약으로 등장하며
근로제 전환의 촉매가 됐다. 우리 세브노조는
2023년 1월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로
해마다 대상을 확대하며 현재는 주 4일제의
완전 전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공짜노동은 이제 그만

환자 인수인계시간 수당 지급

3교대 병동 노동자에게 이른 출근, 늦은 퇴근을 강요해온 환자 인수인계
시간. 매일 30분~1시간가량 할애해야 하는 이 공짜노동은 간호직
노동자들이 정식 노동시간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비록 인정받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지난한 투쟁 끝에 환자
인수인계시간 30분을 정식 노동시간으로 인정받고, 2022년 3월부터
시간외근로수당으로 보전받고 있다.



▲
▲
▲
탑승대기 수당

퇴근했지만 곧 출근할지 모릅니다?!

온콜노동 인정

퇴근은 했지만 언제 콜이 올지 몰라 상시대기하는 콜 대기부서 조합원. 부서별로 일부 수당으로 보전하기도 하지만, 온콜근무의 고충은 끊이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그 고충을 반영해 단체협약을 통해 온콜 근무자의 유급 수면오프를 확보하는 한편, 2021년에는 온콜로 인한 왕복 출퇴근 2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도록 쟁취했다.



과잉진료의 원천적 차단

성과연봉제 폐지

2020년 3월 용인세브란스가 현재의 병원 건물로 확대 개원하면서 용인의 신규 직원만 개인별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가 일방적으로 적용됐다. 세브노조는 의료현장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이러한 연봉제를 폐지하기 위해 투쟁했다. 5년간 성과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동결해 사실상 임금 삭감에 가까웠던 임금체계를 신촌, 강남과 같이 호봉제가 적용되도록 용인세브란스 급여제 적용을 쟁취했다.

여성 25세
정년
STOP

가부장적 차별제도 타파

조기정년제 폐지

1980년대만 해도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25세 여성을 퇴직시키는 조기정년제가 존재했다. 우리 병원에서도 1984년 치대병원의 퇴직 중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1985년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25세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운동'이 일었고, 우리 병원의 간호보조원 400여 명도 단체행동에 동참한 끝에 1987년에 조기정년제를 폐지시킬 수 있었다. 또 남성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던 자녀 학비를 여성 노동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해 1990년부터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근무복 세탁, 꾸밈 노동 해방 머리망 자율화

과거에는 근무복을 가정에서 세탁하다 보니 출근 전에 근무복을 다림질하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졌다. 특수직 간호사는 감염 예방을 위해 원내에서 세탁을 대신해준 반면, 일반직 간호사는 제외였기 때문이다. 동일 직종 간 동등한 대우는 물론 개개인의 세탁노동 해방을 위해 세브노조는 원내 세탁실에서 근무복을 전담하도록 2012년에 단체협약을 맺었다. 또 오랜 세월 두피 통증을 호소해온 간호직 노동자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2018년에는 머리망을 자율화했다.



경력을 존중받는 조직문화 장기근속수당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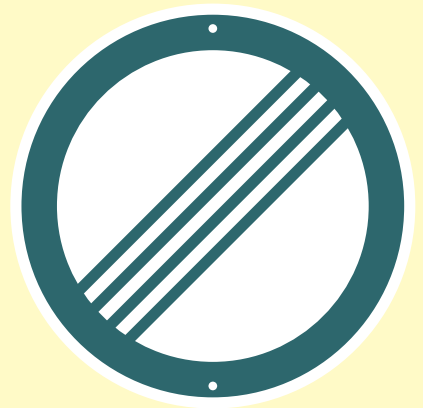
1970년대에는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10호봉을 넘으면 호봉의 50%를 지급하지 않는 가호봉제가 있었다. 경력을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불합리한 처사였던 만큼 1978년에 이를 폐지시켰다. 또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방지해 의료현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1986년부터는 장기근속수당을, 2015년부터는 안식휴가, 힐링캠프 등을 도입해 숙련자가 경력을 존중받으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바꾸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휴직 1년 더

숙련된 노동자가 출산 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한 육아휴직 12개월(유급) 외에 추가로 12개월(무급) 더 연장하는 단체협약을 2015년에 체결했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고용보험이 아닌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2017년 단체협약을 통해 육아휴직 최초 3개월은 100만 원을, 이후 9개월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저출생 정책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됐음에도 우리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올해도 육아휴직급여 현실화를 위해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넣어 교섭을 진행 중이다.



다 못 쓴 연차 증발 방지

미사용 연월차 보상

일이 바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건데도 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보상받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이에 1987년에는 미사용 연월차를 통상임금으로 보상받도록 단체협약을 맺었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특근수당, 야근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월차 금액이 포함되면 급여가 올라간다. 미사용 연차를 임금으로 보상하는 것뿐 아니라 2019년부터는 연차 사용 시, 사유를 적지 않아도 되도록 사유란을 삭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야간근무로 부족한 수면 충전 수면오프 부여

밤낮이 바뀌는 근무시간 때문에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교대직 조합원들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월 7일 이상 야간근무 시 유급 수면오프 1일을 부여하는 단체협약으로 수면시간 보장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수면오프를 확보한 이후 많은 병원계에서 수면오프가 일반화됐다.



비혼 조합원의 소외감 해소 기본가족수당 도입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가구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2015년에 기본가족수당을 신설해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이나 자녀 학비 등을 받지 못하는 만큼 기본가족수당을 통해 소외되는 조합원이 없도록 단체협약에도 균형을 맞추며 세브노조는 병원계에 없던 새로운 단체협약 이정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무임승차자 없는 참여와 연대는 세브노조 열차의 무한동력

열차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전기라면
세브노조 열차의 동력은 조합원의 참여다.

기관사 역할을 하는 집행부도 열차의
속도와 방향을 잘 조절해야겠지만,
노동조합 전체를 끌고 나가는 힘은
결국 조합원에게서 나온다.

조합원의 참여와 연대만이 세브노조 열차를
더 오래, 더 멀리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이룬 ‘빛의 혁명’은
참여와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잘 보여준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참여’는 단순히 힘을 조금
보태는 것이 아닌, 아주 큰 힘으로
증폭됐다. 그리고 그 힘은 역동적인
운동 에너지로 치환되어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을 겨누라는 대통령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하지
않기 위해 시간이 될 때마다
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 같은 아이들이 추운 날
바깥에서 고생하는데,
저만 따뜻한 곳에 있으려니
미안하잖아요. 힘을 보태야죠.”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현 상황에
무임승차하지 않겠다는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깔려 있었다.

시민들의 이러한 의식은 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으로 표현됐다.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헌법 제21조), 청원권(헌법 제26조), 참정권(헌법 제13조)과 같이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 주권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표현됐다. 누군가는 눈이 내리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목청을 높여 탄핵을 외치는 집회의 자유로, 누군가는 친위쿠데타 세력을 처벌하는 온라인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청원권으로, 누군가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 배출 정당을 심판하는 투표 참정권으로 주권을 행사했다.

만약 시민들이 장롱면허처럼 주권을 깊숙이 넣어두고 행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주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사한 끝에 비폭력 집회로 이룬 대통령 파면이라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을 만들 수 있었다.

시민의 참여와 연대라는 동력이 있었기에 정상 작동하게 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처럼 세브노조열차의 동력 역시 ‘참여와 연대’다.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연대하며, 노동자로서의 주권을 적극 행사할 때, 노동조합도 그 에너지를 무한한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전진해 나갈 수 있다.

노동자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동자에게 주어진 기본권인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즉 유니온숍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노동자 주권의 시작이다.



조합원 경조사 함께 나눠요

경조비

경조비는 회계규정 28조, 29조에 근거해 지급합니다.
 지급 유효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니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문의

02-2228-9401~7

팩스

신촌 02-393-6877

강남 02-2019-2205

용인 031-5189-9922

구분	대상	경조비	신청 서류
			공통 : 통장 사본(직번 기재)
결혼	본인	100,000원	청첩장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회갑	본인·배우자	50,000원	가족관계증명서 (ESS에서 관계증명서 출력 가능)
	본인·배우자 부모		
사망	본인·배우자	200,000원	①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본인·배우자 부모	100,000원	②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2025년 5월~7월 경조사

회갑

신촌 중앙멸균실 박준호 본인, 배우자 / 신경계중환자실 장애라 배우자 / 신생아중환자실 진혜임 부친 / 인공신장실 전서연 시모 / 간호지원팀 이정화 본인 / 심혈관내과계중환자실 이재인 모친 / 신생아실 박근숙 본인 / 병리팀 손하영 시부 / 로봇내시경수술센터 이다혜 시모 / 암외래간호팀 박진경 부친 / 환자안전팀 김하은 모친 / 응급실 이유진 부친 / 수술진료지원파트 이은비 모친 / 101병동 안재민 모친 / 107병동 박수연 모친 / 125병동 김연진 모친 / 125병동 박남주 모친
강남 진단검사의학팀 김윤지 부친 / 영상의학팀 김진우 모친, 장모 / 영상의학팀 엄동섭 배우자 / 핵의학팀 정해철 모친 / 원무팀 박혜숙 본인 / 55병동 전아영 모친 / 85병동 임예린 부친 / 안과 박민정 모친 / NCU 임이랑 부친 / 수술실 안소정 모친 / 의료정보팀 권형석 본인
용인 영상의학팀 이충원 모친 / 영상의학팀 김현우 모친 / 재활의학팀 양미나 모친 / 진단검사의학팀 이아영 부친 / 체크업 한아름 모친 / 61병동 김소영 부친

별세

신촌 보험심사팀 이현주 부친 / 심혈관외과계중환자실 박은진 시부 / 의무기록팀 박수진 시모 / 응급실 송지영 부친 / 영양팀 정숙용 모친 / 심혈관 마취통증의학과 권기남 시모 / 비뇨의학과 김명주 시모 / 입원간호3팀 이삼식 장모 / 완화의료센터 김미정 시부 / 수술실 주연영 모친 / 교정과 임소라 시부 / 105병동 예명숙 모친 / 암)회복실 김미랑 모친 / 마취회복실 나다은 시부 / 가정전문간호사실 김원숙 모친
강남 74병동 박소현 부친 / 85병동 김애경 모친 / NCU 천혜원 시부 / 수술실 김재권 부친 / 의무기록팀 최선영 시부 / 입원간호1팀 허준 장인 / 입원간호2팀 김정은 부친 / 의료정보팀 김진호 장모
용인 외래응급간호팀 김선영 모친

결혼

신촌 응급간호팀 박민경 본인 / 응급간호팀 차수빈 본인 / 암)회복실 김현정 본인 / 암)외래간호팀 김현지 본인 / 암)수술실 박기정 본인 / 방사선중양학팀 장세욱 본인 / 신경계중환자실 박혜민 본인 / 마취회복실 이선아 본인 / 임상전담간호파트 정운선 본인 / 안과외래 손민재 본인 / 81병동 장예지 본인 / 97병동 신혜진 본인 / 162병동 장호정 본인 / 162병동 문소희 본인
강남 영상의학팀 방지연 본인 / 영상의학팀 김민기 본인 / 74병동 상하영 본인 / 호흡재활센터 김정희 본인 / 의무기록팀 박영미 장녀 / 호흡기내과 박현희 본인 / 신생아중환자실 안은비 본인 / 인체유래물은행 김소이 본인
용인 진단검사의학팀 박지원 본인 / 수술실 추송이 본인 / 행정교육팀 이훈진 본인 / 중환자실 이민경 본인 / NICU 변민정 본인 / 101병동 최인혜 본인 / 응급외래간호팀 고유지 본인

독자 미션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창립 기념 퀴즈

의료계 최초의 노동조합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조합원들과 함께 단합하기 위해 다양한 연중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퀴즈를 풀고, 정답과 함께 인적사항이 함께 나오게 사진을 찍어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카카오톡으로 응모해 주세요.



▲ 세브노조 카카오톡

기간 2025년 8월 31일(일)까지 | 선물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증정

응모자 성함

직번

연락처

소속 신촌 강남 용인

국(팀)

파트(병동)

Quiz

다음 중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한 창립 65주년 행사가 아닌 것은?

- ① 여성마라톤대회 ② 진로캠프 ③ 디즈니 인 콘서트
- ④ 25년 차 힐링캠프 ⑤ 한여름밤의 음악회(with 콰르텟엑스)

Congratulations!

지난 호 당첨자 발표		지난 호 당첨자 발표	
강남세브란스 외래고객만족1파트	최신애	세브란스병원 191병동	이은주
강남세브란스 외래고객만족2파트	유혜인	세브란스병원 112병동	이우석
강남세브란스 42병동	안정희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파트	유현종
강남세브란스 병리팀	고경빈	용인세브란스 응급진료파트	류승연
세브란스병원 마취회복1파트	방은하	용인세브란스 112병동	왕유나
세브란스병원 수술4파트	한혜임	용인세브란스 임상전담간호파트	서재화
세브란스병원 142병동	박혜원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해법 모색, 주4일제

주 4일제

2025. 8. 12. (화) ————— 09:30 - 12: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프로그램

사회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현장 발언

세브란스병원 191병동 간호사

강남세브란스병원 52병동 간호사

주제 발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지정 토론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권영식 연세의료원 인사국장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장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SEVERANCE HOSPITAL TRADE UNIO